



선운산 천마봉



범바위



고창갯벌 세니어(모래언덕)

# 고창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도전 본격화

군, 2022년 최종 인증 앞두고 대죽도 등 전지역 지질조사 착수 생태·문화 복합관광단지 자리매김

한국지질자원연구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죽도 등 지질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 용역은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팀(지구환경과학)이 7개월 동안 진행한다. 용역을 통해 고창의 새로운 지질명소를 발굴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2022년)과 국가지질공원 재인증(2021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지난 2017년 9월 부안군과 함께 고창

군 지질명소 6곳(운곡습지 및 고인돌, 선운산, 소요산, 고창갯벌, 명사십리 및 구시포, 범바위) 등 총 12곳을 포함해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이 환경부로부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국내 후보지로 선정돼 2022년 최종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창군은 그동안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 지정 등으로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세계

적으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지질분야의 유네스코 타이틀을 추가 획득해 지질·생태·문화의 복합관광단지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의 지질학적 기원을 심도 있게 알아보고, 세계적인 가치를 입증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월 생활비 100만원 쓰면 3개월에 63만원 적립"

익산시 지역화폐 '다리로움'... 맞벌이 부부 경우 126만원 혜택

익산시가 지역화폐인 '익산다리로움'의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화폐인 '다리로움'의 개인별 인센티브를 오는 6월까지 100만원까지 확대하고, 결제금액의 10%를 소비촉진지원금(페이백)으로 되돌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다리로움을 통해 월 생활비를 100만원 사용했을 경우 10만원의 인센티브와 110만원에 대한 10% 소비촉진지원금(페이백) 11만원까지 1인당 2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6월까지 3개월 동안 총 63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사용하면 3개월에 126만원까지 혜택은 늘어났다. 이 화폐는 음식점, 슈퍼·마트, 병원, 주유소,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부 대형마트, 본사 직영점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가맹점 등록 없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인센티브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지역화폐 충전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익산시가 발행한 다리로움은 116억여원 규모로 총 2만5000여명이 가입해 사용하고 있다. 지난 3월 한 달 간 다리로움 70억원을 충전했다. 특히 최대 100만원까지 인센티브 10% 혜택을



확대한 지난 3월 26일 이후 10일간 46억원이 충전됐다. 이달부터 충전 금액의 10%를 되돌려주는 소비촉진지원금(페이백)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는 6일 동안 12억원이 결제됐다.

사용업소는 음식점이 26.7%로 가장 많았고, 슈퍼와 마트 20.8%, 병원 10.6%, 주유소 7.6%, 학원 6.5%, 기타 10.1% 순으로 나타났다. 다리로움을 사용하고 있는 한 시민은 "다리로움은 석달 동안 월 100만원씩 충전해 사용하면 1인당 63만원, 4인 가족인 경우 252만원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재산·직업 따지지 않고 병원비, 자녀학원비 등 일상생활에 사용 가능하니 재난기본소득보다 더 낫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순창군이 저소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이달부터 장애인 추가 수당을 월 2만원씩 매달 지급한다. (순창군 제공)

## 순창군, 저소득 장애인 수당 월 2만원씩 추가 지급

순창군은 저소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등급 폐지 전 3급, 4~6급)에게 이달부터 장애인 추가 수당을 월 2만원씩 매달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 폐지 전 1~2급 및 3급 중복지)의 경우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저소득 장애인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 수당 월 4만원만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혜택 부분에서 소외돼 있다고 판단, 추가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말 순창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2978명으로, 이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941명이다. 이 중에서 저소득층(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으로 소득이 미미해 정부로부터 장애 수당을 받는 485명이 이번 추가 수당 지급 대상자다. 순창군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지난 1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부실시공' 드러난 하수관거 군산시, 잔여 구간도 정밀조사

군산시가 일부 부실시공이 드러난 '군산 하수관거 BTL(임대형 민자사업) 정비사업'의 전체 구간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9일 군산시에 따르면 민·관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군산 하수관거 BTL정비사업'의 공사가 준공 도면에 맞춰 진행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 대상은 전체 114km 가운데 지난해 조사했던 5.9km를 제외한 108.1km이며, 5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진행한다. 앞서 군산시는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공동조사단을 구성, 조사해 137곳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업은 716억원을 들여 기존의 합류식 하수관로를 우수관으로 사용하고 오수관을 새로 설치하는 대규모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2011년 마무리됐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정음시는 시립박물관 1층 옛 어린이문화놀이터를 리모델링해 정음관광 VR체험관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정음시 제공)

## '단풍의 고장' 정음 풍경 체험하세요 시립박물관 VR체험관 불거리 제공

정음시는 시립박물관 1층 옛 어린이문화놀이터를 리모델링해 정음관광 VR체험관으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9일 밝혔다. 정음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휴관에 들어간 시립박물관에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체험관 조성을 준비해 왔다. 체험관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 정식 오픈할 예정으로 시립박물관과 정음을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콘텐츠는 정음의 대표 명소 내장산의 사계절 중 푸른 신록으로 가득한 여름과 붉게 물든 가을의 풍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기법을 도입하고 VR 시뮬레이터 의자 4대를 설치하는 등 첨단장비를 구비해 실제 열거리를 타는 느낌이 들도록 가상체험형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정음시는 VR 콘텐츠를 통해 외부 방문객과 관광객에게 지역 내 관광지를 소개하고 현장 방문까지 이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R 체험관은 주 5회(월요일 휴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의사고! 허위입원! 허위청구! 과잉진료! 확대수리

##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SAMSUNG 삼성화재H 현대해상KB손해보험동부화재KOREAN KOREANSGI서울보증AXA AXAAIG AIGTheK손해보험NH손해보험